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을 위한
공 청 회 자 료**

2018. 10. 17.(수)



문화체육관광부

|| 목 차 ||

- ☐ 공청회 개요 1
- ☐ 발표 1 : 무장기포일(고창군) 3
- ☐ 발표 2 : 백산대회일(부안군) 19
- ☐ 발표 3 : 황토현전승일(정읍시) 25
- ☐ 발표 4 : 전주화약일(전주시) 31

* 발표순서 : 기념일 날짜 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8. 10.17.(수), 14:00~17:00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 내용 : 기념일 추천(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청취
- 참석 : 추천(안) 제안 지자체 관계자, 일반 방청객 등

□ 진행 계획(안)

* 발표순서 : 기념일 날짜 순

구 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 회	(사회자)
14:05-14:10 (5')	○ 인사말씀	
14:10-14:30 (20')	○ 발표1 : 무장기포일(4월25일)	고창군
14:30-14:50 (20')	○ 발표2 : 백산대회일(5월 1일)	부안군
14:50-15:10 (20')	○ 발표3 : 황토현전승일(5월11일)	정읍시
15:10-15:30 (20')	○ 발표4 : 전주화약일(6월11일)	전주시
15:30-15:50 (20')	<휴식시간>	
15:50-17:00 (70')	○ 발표자 토론 및 방청객 의견 수렴	(사회자)
17:00	○ 폐 회	(사회자)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추천서·설명자료

2018. 10. 17

고 창 군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추천서

추천일명 (날짜)	• 무장기포일 • 양력(4월 25일) / 음력(3월 20일)
추천사유 (요약)	역사성 • 전봉준을 비롯한 고부 일대 사람들이 1893년 말 봉기를 계획한 후 1894년 1월 "고부봉기"를 일으키고 이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인근읍의 호응 부재로 지역적 한계를 넘지 못함. • "고부봉기"실패 후 전봉준은 무장으로 와 손화중을 비롯한 전라도 각지의 지도자 및 동학교단과 연계하여 고을 단위를 뛰어 넘는 전국적 항쟁을 시작할만한 농민군을 무장으로 모아 『무장포고문』을 발포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됨. • 이 점에서 『무장포고문』 발포일인 4월 25일(음력 3월 20)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뚜렷하고 분명한 역사성을 가짐
	상징성 • 『무장포고문』은 지배층의 탐욕과 부정과 부패로 고통 받던 민중의 분노,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하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이 터져 나온 커다란 울림으로 농민군의 이념이나 목표인 "사람 사는 세상"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선언임. •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은 전라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도 격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하는 등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전국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민중 민족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인 시작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이었음. • 『무장기포』 『무장포고문』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가짐. 근대전환기에 일어난 다른 나라의 민중운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조직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되었으며, 자신들의 봉기 목적, 현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등이 이처럼 당당하고 명확하게 표현된 글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추천서

• 고창동학농민혁명유적지

명 칭	지정번호	위 치	비고
고창무장동학농민혁명기포지	전라북도기념물 제129호	공음면 선운대로 308 일원	
전봉준 생가터		고창읍 당촌길 41-8	
선운사동불암지마애여래좌상	보물 제 1200호	아산면 도솔길 294	
무장현관아와읍성	사적 제 346호	무장면 무장읍성길 45	
고창읍성	사적 제 145호	고창읍 모양성로 1	
홍성동헌	지방유형문화재 제 77호	홍덕면 동헌길 4	
손화중도소		성송면 괴치2길 15	
왕제산(여시외봉)		공음면 왕제산로 502 일원	
손화중피체지		부안면 인촌로 322-65	
동학농민혁명홍보관		공음면 왕제산로 502	

• 지방자치단체 기념 행사 추진 내용

무장기포 100주년 기념 학술 발표이후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대의를 널리 알리고 역사 바로 잡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선양사업 및 성지화 사업을 추진.

- 1) 무장포고 재현 경기대회 : (1994, 2002, 2007~)
- 2) 전봉준 탄신 기념행사 추진 : 매년 1.10(음 12. 3) (2006~)
- 3)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기념제 : 매년 4. 25(음 3.20) (1994~)
- 4) 녹두대상 :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제11차)
- 5)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제15차)
- 6)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개발
- 7)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8) 동학농민혁명 진격로 재조명 후 진격로 정비
- 9) 동학담당부서 전국 최초 신설
- 10) 동학농민혁명사 발간 등
- 11) 동학농민혁명 역사기록화 사업
- 12) 녹두교실, 동학교육, 체험캠프등 지속적인 정신선양사업 추진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취지

- 제1조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해 봉기』 한 제정 취지와
- 제2조 “참여자” 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1차로 봉기, 같은 해 9월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해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무장기포일이 혁명의 시작임을 명시한다.

추천 사유
(요약)

지역 참여도

기타의견

2018. 9.

추천자 : 고창군수



설명 자료

법정기념일	명칭 : 무장기포일
	날짜 : 양력 4월 25일(음력 3월 20일)

□ 개요

- 한국 역사상 최대 민중운동인 동학농민혁명을 시작 한 날
- 무장기포는 “전국”에 걸친 봉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전국성을 가졌고, 근대 전환기 세계적 혁명운동이 가지고 있는 정치질서 및 사회신분 면에서 뚜렷한 근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 보편성을 가졌음

□ 역사성

-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그것을 알리는 <무장포고문>이 발포된 날
- 동학교단 내의 변혁지향적 세력은 1893년초부터(삼례대회, 광화문 복합상소 시기, 보은 금구집회시기) 중앙권력의 타도와 정부 개혁을 위한 “거병”을 기도하였으나 실패.
- 이후 각 지방으로 돌아간 이들은 꾸준히 새로운 거병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1893년 말 전봉준이 주도하여 마련한 이른바 “사발통문” 봉기계획은 그 대표적 사례.
- 전봉준은 1894년 1월 “사발통문” 봉기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고부민란”을 일으킨 다음 전국적 봉기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인근 읍의 호응 부재로 실패.
- 그러나 고부민란 당시인 2월 20일경 전라도 전역에 보국안민을 위한 <창의문>을 보냈고, “고부민란”이 실패한 후 전봉준과 손화중을 비롯하여 전라도 각 지역에서 고을 단위를 뛰어 넘는 전국적 항쟁을 시작할만한 농민군이 무장으로 모이자, 마침내 3월 20일 무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문>을 발포하고 동학농민혁명을 시작하였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장봉기>는 길게는 19세기 이래 빈발해온 민중운동의 총귀결이었고, 짧게는 1893년초부터 변혁지향세력이 기도한 중앙권력의 타도와 정부 개혁을 위한 “거병” 노력, 그리고 1893년 말 전봉준이 주도하여 마련한 “사발통문” 봉기계획 등 일련의 기도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이루어진 결실이었음.
- 그 결과 고을 단위를 뛰어 넘어 전라도 각 지역에서 농민혁명을 수행할 의식을 일정하게 갖춘 농민군이 무장으로 모였으며,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포고문> 발포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음.

□ 상징성

○ 근대전환기의 혁명운동으로서의 상징성

- 무장기포는 배경과 시작 과정, 전국적 민중운동으로 발전시킨 점 등에서 여타의 중세적 농민항쟁과 달리 근대전환기 혁명운동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
- 무장기포는 신분제 해체와 민주적인 정치질서를 추구한 혁명운동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근대를 향한 사회·정치개혁 운동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의 세계사적 의미

-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근대 전환기에 일어난 다른 나라의 민중운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조직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되었으며, 자신들의 봉기 목적, 현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등이 이 처럼 당당하고 명확하게 표현된 글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예컨대 중국의 태평천국운동에서 최고지도자 홍수전은 1851년 1월 11월 금전에서 배상제회 교도들을 모아 놓고 태평천국의 성립을 선언하고 자신은 천왕임을 선포하였다. 이날을 기의 일자로 이해, 그러나 특별한 다른 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이념이나 청조에 대한 호소력 있는 비판론이 마련되거나 발표되지는 않았다.
- 1381년 영국의 와트타일러 난은 10만여 명의 농민군이 봉기한 중세 영국 최대의 봉기였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봉기가 시작되었을 때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선언문이나 포고문 같은 것은 없었다. 전개과정에서 그들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을 따름이다.
- 이는 독일농민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토마스 뮌저는 평소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였지만, 그의 영향을 받은 민중들이 각 지역에서 봉기하였을 때 그들의 봉기 목적이나 현 사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글은 없었다. 이점은 서구 중세의 수많은 청년왕국운동 등 대규모 민중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같은 면에서도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자원현황

구	분	설	명	비고
고창무장동학농민혁명기포지 (전라북도기념물 제129호)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무장기포지는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당산(구수내)마을이다. 전봉준과 손화중은 김덕명·김개남과 더불어 사전모의를 한 후, 이곳에서 포고문과 4대명의 등을 선포, 조직적인 혁명의 출발을 알린 역사적인 현장이다.		
전봉준 생가터		동학농민군의 최고지도자 전봉준이 출생한 곳이다. 체구가 조금 작고 야무지다 하여 녹두란 별명을 가지고 있던 전봉준은 <무장포고문>을 선포하여 지역적인 민란을 혁명으로 이끈 선봉장이다. 이 마을에는 전봉준 선대의 묘소가 자리하고, 그의 어렸을 때의 일화가 구전되고 있다.		
선운사동불암지마애여래좌상 (보물 제 1200호)		선운사 도솔암 남측에 중암절벽이 있고, 그 절벽 바위 전면에 미륵불이 새겨져 있는데, 3천년 전 점단선사의 진상이라고도 하며, 배꼽 속에는 비결이 들어있어 그 비결이 세상에 나오는 날 한양이 망하고 새 세상이 열린다는 말이 자자했다. 임진년(1892년) 8월에 손화중 포 도인들이 아음을 틈타 그 비결을 꺼내 왔다는 소문이 돌자 손화중 포에는 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한다. 바로 악한 세상이 지나고 새 세상을 고대하던 민중들이었던 것이다.		
무장현관아와 읍성 (사적 제 346호)		동학농민혁명 당시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이 전라도 각 군·현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고창과 흥덕의 관아 건물들이 훼손되었지만, 무장관아는 극적으로 화를 면했다. 여기에는 무장현 출신 농민군의 만류와 함께 농민군에 대거 동조한 무장 서리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헌과 객사는 온전히 보전되어 있다.		

구 분	설 명	비고
고창읍성 (사적 제 145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	고창읍성은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석성으로써 호남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정읍·홍덕·고창을 연달아 점령하여, 고창읍성 내의 옥문을 열어 동학도를 풀어주고, 읍성 앞에 살며 부정축재를 일삼았던 은수룡의 집을 불태웠다.	
홍성동헌 (지방유형문화재 제 77호)  전북 고창군 흥덕면 동헌길 4	전봉준이 체포되자 고향으로 돌아온 차치구는 입암 마석의 뒷산인 국사봉 토굴에서 숨어 지냈다. 그러나 흥덕 관아에 끌려가 동학농민군과 함께 불태워져 살해되었다. 그의 아들 차정석(보천교 창시자)은 부친이 평상시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닌다는 모친 말이 생각나, 불타 손상된 시신을 찾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손화중도소  전북 고창군 성송면 괴치2길 15	정읍에서 태어난 손화중은 처음 부안에서 포교를 시작해, 정읍을 거쳐 무장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 이곳은 본래 농민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최부자집이 있었던 곳이었으나, 혁명의 시작과 함께 보다 활동적인 공간이면서 많은 물자를 보급 받을 수 있는 장소인 이곳으로 도소를 옮겼다고 한다. 본래 본채 외에 사랑채가 'ㄱ'자로 되어 있었으나 몇 년 전 사랑채를 헐고 그 자리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왕제산(여시외봉)  전북 고창군 공음면 왕제산로 502 일원	무장읍성에서 5리쯤 떨어진 이곳은 표고 152m의 야트막한 산으로 여시외봉이라고도 한다. 뒤에서 보면 낮아 보이지만 정상에 서면 사방이 트여서 전망이 좋아 방어와 공격에 유리한 곳이다. 무장읍성을 점령했을 때 농민군 일부가 이곳에 머물며 진을 치고 휴식과 재정비를 취한 장소이다.	
손화중피체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 322-65	고창군 부안면 고잔리 이씨 재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손화중은 그의 동생 익중, 조카 영옥 등이 치형당하고, 전봉준과 김개남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후, 재실지기인 이봉우의 고발로 붙잡혀 전주 감영을 거쳐 서울로 압송되었다.	
동학농민혁명홍보관  전북 고창군 공음면 왕제산로 502	동학농민혁명의 자유·평등·자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알기 쉽게 설명·전시하고 있다.	

□ 지역 참여도

년 월 일	내 용	비 고
1993.11.19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100주년기념 학술발표회 「전봉준은 고창당촌 태생」	
1994. 4.24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무장포고 재현 걷기대회	
1994. 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00주년 위령제 개최	
1994.10.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세미나 발표	
1994.	무장기포지성역화사업 추진(무장기포지 표지석 및 포고문 비석설치)	
1995. 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01주년 위령제 개최	
1996. 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02주년 위령제 개최	
1997. 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03주년 위령제 개최	
1997.10.11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세미나 개최	
1998. 4.23	동학농민혁명 기념학술대회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개최	
1998. 4.25	전봉준장군 태생지 정비사업(토지매입)	
1998.12.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단행본 발간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발간	
1999. 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05주년 위령제 개최	
1999	무장기포지성역화사업 추진(토지매입 및 환경정비사업)	
1999. 6.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봉준생가터」외 고창권 동학유적지 현황 정비방향	
2000. 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06주년 위령제 개최	
2000.	무장기포지 기념사업 전봉준장군 생가터 정비사업(주차장시설, 표지판 설치) 기포지 상징조형물 건립추진 무장기포지성역화사업 추진(환경정비사업:주차장시설정비) 동학농민군 진격로 시설	
2001. 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07주년 위령제 개최	
2001.	무장기포지성역화사업 추진(주차장 포장)	

년 월 일	내 용	비 고
2002. 4.25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108주년 위령제 개최	
2002.	무장기포지성역화사업 추진(모정건립 외 토지매입 등)	
2002. 4.25	동학농민혁명군 상징 기념탑 건립	
2002. 7.31	동학혁명 발자취를 따라 걷기대회	
2003. 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09주년 위령제 개최	
2003. 7.25	동학혁명 발자취를 따라 걷기대회	
2003. 8. 1	동학농민혁명 체험 청소년어울마당	
2004. 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10주년 위령제 개최	
2004.	동학농민혁명훈련장 조성	
2004. 4.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기본계획수립	
2004.10.16	동학농민혁명과 고창과의 관계정립을 위한 학술회의	
2005. 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11주년 위령제 개최	
2006. 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12주년 위령제 개최	
2006.	동학관련시설물 설치(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006. 3.17	동학유적지 정비 기본성계용역 실시계획	
2007. 1.10	제2회 전봉준장군 탄생 151주년 기념행사	
2007. 4.25	제113주년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기념식	
2007. 6.	동학농민혁명 5대핵심 전략 추진	
2007. 8.24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사단법인 등기	
2007. 8.31	고창 동학농민혁명유적지정비 기본계획 용역	
2007.10.15	고창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한 다짐대회	
2007.11.30	제3회 동학동민혁명 대토론회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	
2008. 1.10	제2회 전봉준장군 탄생 152주년행사	
2008. 4. 1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4.25 ~ 4. 26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음성축제 제1회 녹두대상 기념식 제)동학농민혁기념재단 수상	
2008. 7. 4	동학농민혁명 스티디그룹 '녹두교실' 창립	
2008. 9.25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제15차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	
2008.11. 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홈페이지 구축	
2008.11.19	고창동학농민혁명 토론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방향과 과제]	

년 월 일	내 용	비 고
2009. 1.10	전봉준장군 탄생 153주년 기념행사	
2009. 4.25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 제2회 녹두대상 수여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2009. 7.30	세계의 역사기록화와 동학농민혁명 역사기록화 국제학술회의	
2009.12.18	무장읍성 느티나무 무장기포지 이식	
2010. 1.10	전봉준장군 탄생 154주년 기념행사	
2010. 2.20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사” 발행	
2010. 4.25	동학농민혁명 제116주년 무장기포 기념제	
2010. 5.29	파랑새 녹두길 걷기 체험	
2010.11. 4	제6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기포의 의의]	
2010.11. 5	고창동학농민혁명 무장읍성축제 제3회 녹두대상 수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1. 1.10	전봉준장군 탄생 155주년 기념행사	
2011. 4.25	동학농민혁명 제117주년 무장기포기념제	
2011. 4.25	고창동학농민혁명 무장읍성축제 제4회 녹두대상 수여(이이화 역사연구소 소장)	
2011. 4.25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대회-세종문화회관	
2011.11.21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관련 심포지움 참가	
2011.12.	제 7회 동학농민혁명 학술회의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2011.12.30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발행	
2012. 1.10	전봉준장군 탄생 156주년 기념행사	
2012. 4.25	동학농민혁명 제118주년 무장기포 기념제 고창동학농민 혁명무장읍성축제 제5회 녹두대상 수여(조정달-일본 치바대 교수)	
2012. 9.12	동학농민혁명 스터디 그룹-녹두교실 장소 : 태안, 서산, 홍성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2012.11.29	제 8회 학술회의 [동학의 글로벌리제이션 고창의 동학농민혁명과 동귀일체의 동학정신]	
2013. 1.10	전봉준장군 탄생 157주년 기념행사	
2013. 3. 8	“19세기 사상의 거쳐” 발행	
2013. 4.25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무장기포 기념제	
2013. 4.25	고창동학농민혁명 무장읍성축제 제6회 녹두대상 수여(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특별취재팀)	
2013.11. 8	제9회 학술대회 [1890년대 초반 조선사회와 민중동향]	

년 월 일	내 용	비 고
2014. 1.10	전봉준장군 탄생 158주년 기념행사	
2014. 3.26	초등학교 교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30여명) 강연 :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이사장)	
2014. 4.24	제 10회 학술대회 [무장기포의 사료적 가치와 위상]	
2014. 4.25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무장기포 기념제 고창동학농민혁명무장읍성축제 제7회녹두대상수여(나카츠카 아키라-나라여대 명예교수) 동학농민혁명홍보관 개관-귀농귀촌학교(구.신왕초)내 1층	
2014. 4.24 ~ 4. 27	영호남 역사기행	
2014. 4.	무장기포지-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전라북도 기념물) 신청	
2014. 4.	의병연구서 발간 - 국권회복기 고창동학농민혁명과 의병(문학박사 이태룡)	
2014. 4.	스토리 텔링 소설 창작 구수내와 개갑장터의 들꽃(소설가 이성수)	
2014. 6. 5	학생 유적지 탐방-고창고 3학년 250여명 강연 : 조차영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	
2014. 7. 3	학생 순회 교육 - 강호항공고 3학년 강연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2014. 7.25	학생 순회 교육 - 고창남초등학교 6학년 강연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2014. 8.26 ~ 8. 27	녹두교실 유적지탐방(녹두교실회원 등 40여명)	
2014.10.19 ~11. 8	동학농민혁명 전문가 양성 교육 - 해설사, 녹두교실 회원 등	
2014.10.30	학생 유적지 탐방 - 고창 강호항공고 220여명	
2014.10.31	고창무장동학농민혁명기포지 도지정문화재지정(기념물제129호)	
2014.11. 5	제11회 학술대회(오지영의 동학사에 대한 종합적 검토) 장소 : 성균관대학교600주년기념관	
2014.11.19	학생 순회 교육 - 고창북고등학교 1학년 강연 :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년 월 일	내 용	비 고
2015. 1.10	전봉준장군 탄생 159주년 기념행사	
2015. 3~4	무장기포지 화장실 리모델링	
2015. 4.25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무장기포기념제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 제8회 녹두대상시상(이기화 고창문화원장)	
2015. 5.	학생 유적지 탐방 - 영선중학교 외 2개교 270여명	
2015. 6.	무장기포지 발굴(시굴)조사	
2015. 8	2015 청소년 동학 캠프(2박3일)	
2015. 8.	녹두교실 유적지탐방(녹두교실 회원 등 80여명)	
2015.10.30	제12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당시 고창지역 농민군의 활동 재조명)	
2015. 8.17 ~ 11.30.	고창동학농민혁명 전국포스터 공모전	
2015.11. 5	학생 유적지 탐방 - 영선고등학교 160여명	
2016. 1.10	전봉준장군 탄생 160주년 기념행사	
2016. 4.25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무장기포기념제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 제9회 녹두대상시상(신용하 전 서울대학교 교수)	
2016. 5.18	학생 유적지 탐방 - 고창북고등학교 130명	
2016. 7.	2016 청소년 동학 캠프(2박3일)	
2016.10.04	학생 유적지 탐방 - 강호항공고등학교 60명	
2016.10.14	학생 유적지 탐방 - 고창중학교 90명	

년 월 일	내 용	비 고
2016.10.17	녹두교실 유적지탐방(녹두교실 회원 등 80여명)	
2016.11.10	제13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전봉준 장군 생가 터의 역사적 의의와 활용 및 보존방안)	
2017.01.10	전봉준장군 탄생 161주년 기념행사	
2017.04.25	동학농민혁명 제123주년 무장기포기념제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 제10회 녹두대상시상(이상식 전 전남대학교 인문대 학장)	
2017.04.27	학생 유적지 탐방 - 신림초등학교 42	
2017.05.25	학생 유적지 탐방 - 상하중학교 53	
2017.05.26	학생 유적지 탐방 - 고창북고등학교 127명	
2017.06.05	1차 녹두교실 유적지탐방(녹두교실 회원 등 80여명)	
2017.06.08	학생 유적지 탐방 - 아산초등학교 30명	
2017.06.16	학생 유적지 탐방 - 공음초등학교 30명	
2017.06.10 ~06.11.	2017년 1차 청소년 동학 캠프(1박2일) : 30명(관내외청소년)	
2017.07.24 ~07.25.	2017년 2차 청소년 동학캠프 (1박2일) : 30명 (관내외청소년)	
2017.09.22	2차 녹두교실 유적지 탐방(녹두교실 회원 등 95여명)	
2017.11.15 ~11.16.	동학유적지탐방 및 제14회 학술대회 (고창지역 동학 농민군의 활동과 기념사업의 방향)	
2017.07. ~11.	이장단과 함께하는 동학유적지 탐방교육 -14개 읍면이장단 523명	
2017. 12.	동학농민혁명 포고문 발행	
2018. 1.10	전봉준장군 탄생 162주년 기념행사	
2018.04.25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기념행사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기념제 제11회 녹두대상시상(사) 전봉준동상건립위원회	
2018.05.04	학생 유적지 탐방 - 신림초등학교 24명	
2018.05.07	학생 유적지 탐방 - 해리고초등학교 30명	

년 월 일	내 용	비 고
2018.05.09	학생 유적지 탐방 - 강호항공고등학교 82명	
2018.06.05	1차 녹두교실 유적지탐방(녹두교실 회원 등 35여명)	
2018.05.23	학생 유적지 탐방 - 해리초등학교 25명	
2018.05.25	학생 유적지 탐방 - 공음초등학교 39명	
2018.05.30	학생 유적지 탐방 - 대성중학교 52명	
2018.05.31	학생 유적지 탐방 - 고창북고등학교 114명	
2018.06.04	학생 유적지 탐방 - 가평초등학교 38명	
2018.06.16 ~ 06.17.	2018년 1차 청소년 동학 캠프(1박2일) 30명(관내외청소년)	
2018.08.04 ~ 08.05.	2018년 2차 청소년 동학 캠프(1박2일) 30명(관내외청소년)	
2018.09.06	동학농민혁명 인문학 강좌 1강	
2018.09.28	동학농민혁명 인문학 강좌 2강	

□ 기타 의견

- 무장기포는 전공 학자 다수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선정한 날이다.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무장기포일 선정 현황
 - * 2004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3차회의 : 무장기포일 의결
 - * 200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무장기포일 의결
 - * 2010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전국 대의원 총회 : 무장기포일 의결
 - * 2011 동학농민혁명기념일제정 추진위원회 : 무장기포일 의결
-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기념일은 대체로 그 사건이 시작된 날, 혹은 해당 사건의 최종적 목표가 달성된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특히 3.1운동 당시의 독립선언서 발포와 같이 그 시작을 알리는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행위가 있었던 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건이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 결론 및 건의

- 무장기포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수많은 전투와 사건이 일어났으며 3.1운동, 광복군 활동, 4. 19혁명, 5. 18광주민주항쟁, 16년 광화문촛불시민혁명까지 그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다.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1차로 봉기, 같은 해 9월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해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무장기포일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일을 명시한 것이다.
- 역사성과 상징성 등 여러 면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무장기포일로 지정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붙임 : 1. 각 종 근거자료 등

2.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동의서(소관 단체 포함)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추천서·설명자료

2018. 10. 17

부 안 군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추천서

추천일명 (날짜)	• 백산대회일 • 양력(5월 1일) / 음력(3월 26일)
추천사유 (요약)	역사성 • 1894년 1월 10일(음) 고부기포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의 지휘소를 2월 25일 백산에 설치한 후 동학혁명군 주둔. • 3월 20일 무장기포 후 3월 26일 백산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의 혁명군으로서의 대오 편성. • 전봉준 동도대장 추대, 4대 명의 및 12개조 군을 제정하고 반포함. • 동학농민혁명의 혁명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격문을 각지에 발송하여 호남일대 동학혁명군 백산으로 집결.
	상징성 •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 확보. • 동학농민혁명군의 초기 연합전선 형성. • 동학농민혁명의 혁명성. • 동학농민혁명군의 위상 및 지휘체계를 마련. • 동학농민혁명의 근거지와 전국적 확산. •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백산대회’에 맞추어 1968년부터 1971년까지 개최하였음. • 천도교에서는 1961년 최초로 동학혁명기념일을 백산대회일로 정하여 2013년까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음.
	지역참여도 • 부안지역에는 1890년 동학이 첫 포교, 동학 관련 사적지로 웅정, 쟁갈, 신리 등 유지 보존. • 부안지역 동학조직 1893년 광화문 교조신원운동 및 칙왜양창의 운동 참가. • 동학농민혁명 당시 부안의 도소(집강소) 현재 유지 및 보존. •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대회 개최. •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조직, 각종 기념행사 등 사업 전개.

기타의견	• 200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정에서 일부 연구자에 의해 '백산대회' 실체 부정으로 의도적 제외됨. • 선정기준 '지역참여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서 지역성을 보다 강화하고 기득권을 인정할 소지가 있음.
2018. 9. 추천자 : 부안군수 권익현	

설명 자료

법정기념일	명칭 : 동학농민혁명기념일
	날짜 : 양력(5월 1일) / 음력(3월 26일)

□ 개요

- '백산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격문'을 반포하고 동학농민혁명군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분수령을 이룬 '백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을 전국화 시키는데 기여함.
- 백산은 '앞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의미로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임
-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을 백산대회에서 '동도대장'으로 추대하고, 지휘부를 확립하였음
- 백산대회는 고부기포와 무장기포를 한 단계 발전시켜 동학농민혁명군의 위상을 갖추음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토대를 마련함

□ 역사성

- 1894년 1월 고부기포에 이어 3월 무장기포 이후 '백산'은 동학농민혁명의 주둔지로서 뿐만 아니라 지휘소를 설치하였고 동학농민혁명군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
- 백산은 비록 47m에 불과하나 주변 지역이 평야로서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백산 정상에서는 배들평야와 만재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
- 1894년 1월 10일 고부기포 이후 전봉준 등 봉기 주도자들이 봉기를 장기전을 위해 백산성 축조, 사발통문의 계획 실천, 동학농민혁명 초기의 말목장의 지휘소를 백산으로 이동
- 무장기포 이후 고창(3.20~21)-홍덕(22)-부안·정읍-고부(23)-고부·태인(24)-금구·원평(25)을 거쳐 백산에 동학농민혁명군 주둔, 각지에 '격문'을 발포하고 전봉준을 동도대장으로 추대하고 동학농민혁명군으로서의 조직을 확립함

□ 상징성

- 동학농민혁명의 혁명성, 연합전선, 전국화, 동학농민혁명군의 위상을 갖추는 상징성을 거지고 있음
- 백산대회는 '앞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동학농민혁명의 의의를 담고 있는 격문을 통해 혁명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
- 백산대회 격문은 “조금도躊躇치 말고 이時刻으로 일어서라”라고 하여, 전 민족의 반봉건 반외세의 연합전선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호남 지역 동학혁명군의 백산 집결함
- 격문의 발포와 동학농민군의 집결로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를 하는데 토대를 마련함
- 동학농민혁명군의 4대강령과 12개조 군율을 마련

□ 지역 참여도

- 동학 관련 유적지 보존과 백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기념행사 전개
 - 동학의 최고지도자 해월 최시형이 활동한 용정, 쟁갈, 신리 등 유적지를 발굴 보존함
 - 동학농민혁명 당시 도소이며 집강소였던 유적지를 보존하고 있음
 - 2000년부터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대회를 현재까지 개최하고 있음

□ 기타 의견

- 200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당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백산대회’를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후 백산대회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서 완전히 배제됨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은 지역성을 극복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 결론 및 건의

-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 혁명성, 전국성을 확보하고 있는 백산대회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일부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 붙임 각종 근거자료 등(별도 송부)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추천서·설명자료

2018. 10. 17

정 읍 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추천서

추천일명 (날짜)	• 황토현전승일 • 음력(4월 7일) / 양력(5월 11일)
역사성	• 최초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황토현전승일 - 사발통문거사계획과 고부봉기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는 황토현전승일에서 본격화되었음. - 1894년 4월 7일(양력 5. 11)에 벌어진 황토현전투는 동학농민군과 관군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전투이며,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임. - 이날의 승리로 혁명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장성의 황룡전투를 거친뒤 전라감영의 심장부인 전주성을 점령하였음. • 대한민국 사적 제295호 “황토현전적” 으로 지정 전국동학농민혁명 성지로서의 역할 수행 : 1981. 12. 10
추천사유 (요약)	• 동학농민혁명과 관련 최초의 상징물이 건립된 황토현 전승지 - 당대의 석학 故김상기 박사의 발의와 민간단체의 주도로 1963년 10월 3일 황토현전승지에 최초의 상징 기념물이 건립되었음. - 시조시인이자 국문학자인 故가람 이병기 선생이 위원장을 맡은 ‘갑오동학혁명기념탑건립 추진위원회’가 최초로 ‘혁명’이라 명명한 상징물을 세울 장소를 선정한 것은 중대한 결정사항이었음. - 그 당시 학계를 망라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황토현전승지를 지목한 것은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황토현전승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것이었고, - 또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정희 前대통령이 참석하여 치사를 한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황토현전승일을 인정한 것이었음. • 국가에서 추진 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관 건립 운영 : 2004. 5.11.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황토현에서 상주 동학농민혁명의 선양 사업을 총괄 추진 :

	•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공원 건립 추진중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6년) - 사업규모 : 부지302,116㎡/건축연면적 4,719.11㎡ - 사 업 비 : 40,40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추모시설(희생자공동묘역, 위령탑), 연구소,연구동, 숙영캠프, 동학농민혁명 체험공간 조성 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위패가 황토현 구민사에 모셔져 있으며 “구민사위패봉안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기리는 추모제를 시행하고 있음
지역 참여도	• 정읍지역에 관련 유적지가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 사발통문작성지, 동학혁명모의탑, 무명동학농민위령탑, 전봉준 장군고택, 고부관아터, 만석보유지, 구민사, 김개남장군 생가터, 손화중장군 생가터, 최경선장군 묘소, 말목장터 등) • 1968년부터 민간주도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51년 동안 개최 - 황토현 동학농민기념제는 연인원 3~10만 여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이자 유일한 대민 행사임 - 행사내용 : 구민사 갑오전열 제례 및 위패봉안례, 무명동학농 민군 위령제, 전국청소년 토론대회, 문화예술공연, 학술대회 등 • 51년 동안 민·관·학 협조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정읍시민의 자부심으로 이미 깊게 자리함
기타의견	• 국내외 기념일 사례 모두 최초 전투일로 제정됨 • 특별법 대상 기간 중 최초 전투일은 황토현 전승일임 • 시민적인 참여로 51년 동안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해 온 정읍시민들 자긍심을 고려해야 함 • 황토현을 중심으로 선양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날로의 기념일 제정은 현실적인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2018. 9. 추천자 : 정읍시장 유진섭 (인)	



설명 자료

법정기념일	명칭 : 황토현전승일
	날짜 : 5월 11일

□ 개요

- 황토현 전승일은 최초의 전투일이자 최대의 승전일
-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가장 역사성이 있고 최대 규모의 대중적 기념행사
- 선양사업이 황토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황토현 전승일이 유일하게 기념일에 합당한 날임

□ 역사성

- 황토현 전투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과 격돌한 최초의 전투
- 황토현 전승은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 중 최대의 승전
- 황토현 전승은 전국으로 동학농민혁명이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

□ 상징성

- 1963년 황토현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 조형물인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됨.
- 1976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 34호 황토현전적지 지정
- 1981년 대한민국 사적 제 295호 황토현전적으로 승격 지정
- 2004년 황토현에 국비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관 건립
-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황토현에 상주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선양 사업 총괄 추진
- 2018년 황토현에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공원 건립 진행 중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위패가 황토현 구민사에 모셔져 있고 황토현 전승일에 매년 위패 봉안례와 위령제 진행
- 황토현이라는 명칭은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으로 이미 뿌리를 내림

□ 지역 참여도

- 정읍지역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음(사발 통문 작성지, 동학혁명모의탑,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전봉준 장군 고택, 전봉준 장군 단소, 김개남장군 생가 터, 김개남 장군 묘소, 손화중 장군 생가 터, 손화중 장군 묘소, 최경선 장군 묘소, 말목장터, 고부관아 터, 만석보유지, 만석보 혁파비, 황토현 전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교육관, 구민사, 태인 전투지, 기해봉기 터, 갑오동학혁명백주년기념탑 등)
- 1968년부터 정읍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51년 동안 개최, 동학농민혁명 관련 실질적 대표 행사로 역할
-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연인원 3~10만 여명이 참여하는 동학농민혁명관련 기념행사 중 최대 규모이자 유일한 대중적 행사
- 전두환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기념제 주관단체가 해산되고 관주도의 행사가 열리기도 했으나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민간 주도 행사 회복
-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정읍시 고부면 대외마을) 건립과 최경선 장군 묘역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읍시민들의 자긍심이 강함

□ 기타 의견

- 국내의 유사한 국가 기념일 모두 최초 투쟁일을 기념일로 정했고 조직의 결성일이나 입장의 선포일로 정한 사례가 없음(예; 3.1절, 4.19혁명 기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의병의 날 등)
- 국외의 혁명기념일 모두 최초 투쟁일로 정해져 있음(예; 프랑스대혁명 기념일, 신해혁명 기념일, 쿠바혁명 기념일, 멕시코혁명 기념일, 러시아혁명 기념일 등)
- 국내외 사례와 부합되는 기념일은 황토현 전승일이 유일함
- 선양사업이 황토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적 조건에서 다른 날로 제정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 결론 및 건의

- 황토현 전승일이 기념일의 조건에 유일하게 부합되는 날임
- 합리적 결정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극복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선양과 계승, 실천을 통해 선열들의 염원을 실현했으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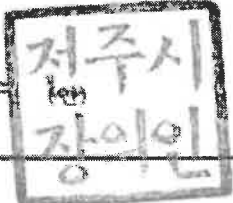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추천서·설명자료

2018. 10. 17

전 주 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추천서

추천일명 (날짜)	• 전주화약일 • 양력(6월 11일) / 음력(5월 8일)
역사성	• 동학농민군이 조선정부와 협의를 통한 혁명과업 수행 결과 도출 - 조선정부가 동학농민군의 존재를 공식 인정 - 동학농민군과 조선정부의 청과 일본(외세)을 몰아내야 한다는 자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족적 단결을 이룸 - 民으로부터 시작하여 혁명의 결실을 이끌어 낸 역사적 사건임 • 전주화약 → 폐정개혁안 → 집강소의 일련의 과정은 근대민주주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음 - 폐정개혁안은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세상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임 - 집강소는 관민통치 또는 농민통치의 실현이며,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민주주의 시발적인 사건이자 한국의 자생적 민주주의라 평가됨
추천 사유 (요약)	상징성 • 전주화약일은 혁명의 상징이자 최고의 혁명성과물을 이끌어낸 날로, 촛불혁명을 일으킨 우리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 - 관료들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근원이 되는 혁명으로, 民으로부터 시작하여 '폐정개혁안과 집강소'라는 혁명의 최대 성과물을 이끌어 낸 전주화약일은 촛불의 민심으로 시작하여 정권교체의 성과물을 이뤄낸 우리 국민들에게 법정기념일로서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함 • 전주화약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출발선이자 가장 상징성이 크며, 역사적 지속가능성이 큼 - 집강소 설치의 발판이 되는 전주화약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출발선으로서 근대민주주의의 효시로 평가되는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실임 - 동학농민혁명이 촛불혁명의 근원으로서 오늘날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과거 속에서 오늘날의 역사적 과제를 극복할 해안을 얻을 수 있는 날로서 역사적 지속가능성이 큼 • 두 차례에 걸쳐 전주화약일을 법정기념일 추천일로 정한 사실이 있고 기념재단과 학계자문단에서도 인정한 기념일임 - 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와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문제부 주관)에서 법정기념일 추천일로 전주화약일을 결정한 사실이 있음

추천 사유 (요약)	지역 참여도	•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6. ~ 2021.(6개년) - 사업장소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124-9일원 - 사업내용 : 녹두관, 파랑새관, 생태탐방로, 꽃동산, 민의 광장 등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추모·전시공간 조성 •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치 - 1995년 일본 홋카이도대학에서 발견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전주역사박물관 내에 안치 중이며, 녹두관에 안장할 예정 •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일 : 2017. 3. 30. - 내 용 :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원 : 13명(동학역사2, 건축2, 콘텐츠2, 미술2, 조정2, 시의원1, 당연직1) - 임기 : 2017. 7. 5 ~ 2019. 7. 4(2년) - 근거 :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임무 : 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자문, 기념사업 및 주요정책에 관한 협의 등 - 운영 : 연 2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 개최 •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행사 - 기간 : 매년 5. 31 ~ 6.11 - 장소 : 동학농민혁명 전주유적지, 한옥마을, 전북대학교 등 - 내용 :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기념식 및 문화공연, 고등학생 백일장, 전주지역 유적지탐방, 전시체험행사 등 < 동학농민혁명 전주지역 유적지 > • 삼천(三川) • 용머리고개 • 완산칠봉 • 초록바위 • 전주성 서문지 • 황학대와 유연대 • 전라감영 • 풍남문 •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 • 동학혁명기념관 • 전봉준 장군 동상, 김개남 장군 추모비, 손화중 장군 추모비
기타의견		• 전주성 입성일 5월 31일(음 4월 27일) -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일이자 최대 전승일 - 전주성 점령의 결과물인 폐정개혁안과 집강소 설치는 과지배계층인 농민이 정치권력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큼
2018. 9. 추천자 : 전 주 시 장 김 승 수 		

설명 자료

법정기념일	명칭 : 전주화약일
	날짜 : 6.11

□ 개요

- 전주화약일 6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이 매우 큰 날임
 - 동학농민군이 조선정부와 협의를 통해 폐정개혁안, 집강소 설치로 관민통치·농민통치를 실현하여 근대민주주의의 효시가 되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임
 - 혁명의 상징이며, 촛불혁명의 근원이자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최대의 혁명성과물을 이뤄낸 전주화약일은 법정기념일로서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우리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역사적 지속가능성을 지님
 - 전주시에서는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의 추진과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 안치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진행하는 등 숭고한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역사성

- 동학농민군이 조선정부와 협의를 통해 혁명과업 수용 결과 도출
 - 조선정부가 동학농민군의 존재를 공식적 인정
 - 전주화약의 배경에는 동학농민군과 조선정부의 청과 일본(외세)를 몰아내야 한다는 자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족적 단결을 이룸
 - 전주화약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혁명 과업이 수용된 결과 폐정개혁안과 집강소 설치라는 혁명성과물 도출
- 전주화약은 民으로부터 시작하여 혁명의 결실을 이끌어 낸 역사적 사건으로, 전주화약 → 폐정개혁안 → 집강소의 일련의 과정은 근대민주주의 효시로 평가되고 있음
 - 폐정개혁안은 동학농민군이 지향했던 세상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임
 - 전주화약 이후 설치된 집강소는 관민통치 또는 농민통치의 실현
 - 집강소의 관민통치 또는 농민통치는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민주주의 시발적인 사건이자 한국의 자생적 민주주의라고 평가되고 있음
 - 전주화약 → 폐정개혁안 → 집강소의 일련의 과정은 세계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그 출발점인 전주화약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봄

□ 상징성

- 전주화약일은 ‘혁명의 상징’ 이자 ‘최고최대의 혁명성과물을 이끌어 낸 날’ 날로, **촛불혁명**으로 새정권을 맞이한 우리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함**
 - 폐정개혁안과 집강소 설치라는 최고·최대의 혁명성과물을 이끌어 낸 날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혁명의 성격이 가장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는 날임
 - 관료들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근원이 되는 혁명으로, **민으로부터 시작하여 ‘폐정개혁안과 집강소’ 라는 혁명의 최대 성과물을 이끌어 낸 전주화약일은 촛불의 민심으로 시작하여 정권교체라는 성과물을 이뤄 낸 우리 국민들에게 법정기념일로서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함**
- 전주화약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출발선이자 가장 상징성이 크며, 역사적 지속가능성이 큼**
 - 집강소 설치의 발판이 되는 전주화약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출발선으로서 근대민주주의의 효시로 평가되는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실임
 - 동학농민혁명이 촛불혁명의 근원으로서 오늘날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과거 속에서 오늘날의 역사적 과제를 극복할 해안을 얻을 수 있는날로서 역사적 지속가능성이 큼
- 두 차례에 걸쳐 전주화약일을 법정기념일 추천일로 결정한 사실이 있고, 기념재단과 학계자문단에서도 인정한 기념일임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의 운영(4회) 결과 전주화약일을 법정기념일 추천일로 결정('14. 11. ~ '15. 2.)
 - 국가기념일 학계자문단(문체부 주관) 운영 결과 3차 회의시 우금치전투일과의 결선 투표에서 전주화약일이 법정기념일 추천일로 결정('16. 2.)

□ 지역 참여도

-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6. ~ '21.(6개년)
 - 사업장소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124-9일원
 - 사업비 : 83억원(국비 15, 시비 68)
 - 사업내용
 - (1단계) '16~'18 : 녹두관, 생태탐방로, 진입테크, 아트파크, 꽃동산 조성
 - (2단계) '19~'21 : 파랑새관, 민의 광장, 쌈지갤러리, 주차장 조성
 - 추진상황
 - ('16~'17) 생태탐방로, 초록바위 진입테크 및 아트파크 조성 완료
 - ('18) 녹두관 및 꽃동산 조성 중

○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치

- 1995년 일본 홋카이도대학에서 발견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2002년부터 전주역사박물관에 임시 안치 중
-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 안장 예정

○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제 정 일 : '17. 3. 30.
- 내 용 :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 원 : 13명
 - ▶ 동학역사 3, 건축 2, 콘텐츠 2, 미술 2, 조경 2, 시의원 1, 당연직 1(문화관광체육국장)
- 임 기 : '17. 7. 5. ~ '19. 7. 4.(2년)
- 근 거 :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임 무
 - ▶ 전주시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자문
 -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협의
 - ▶ 기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또는 자문
- 심의위원회 운영 : 연 2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 개최

○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행사

- 사업기간 : 매년 5. 31 ~ 6. 11
- 사업장소 : 동학농민혁명 전주유적지, 전주한옥마을, 전북대학교 등
- 사업내용 :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기념식 및 문화공연, 고등학생 백일장, 전주지역 유적지탐방, 전시체험행사 등
- 주 관 :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동학농민혁명 전주지역 유적지 >

○ 삼천(三川)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0-23 일원(우림교 부근)
- 전주성 점령 동학농민군 숙영지(1894.4.26.)

○ 용머리고개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완산3길 29-3(서완산동1가) 일대
- 전주성 입성을 위한 진군 진지(1894.4.27.)

○ 완산칠봉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산43 일대
- 전주성 점령(1894.4.27.) ~ 철수(1894.5.8.)까지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치열한 격전지

○ 초록바위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
- 민간전설로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김개남) 처형지라는 설이 있으나, 서교장(서쪽에 둔 군사훈련장)에서 처형됐다는 기록이 나옴(갑오군정실기)

○ 전주성 서문지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1가 128
- 전주성 점령 시 진격해 들어간 곳

○ 황학대(現 신흥중)와 유연대(신흥중~기전대 산줄기)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119 일대
- 1894.5.3. 대규모 전투지(전봉준 부상 및 동학농민군 500여명 피해)

○ 전라감영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구 전북도청)
- 대도소(집강소 총 본부) 설치 지역으로 민관협치가 실현된 곳

○ 풍남문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전동)
- 1984년 4월 27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할 때 공략하여 진격해 들어간 곳이자, 전주성을 점령하고 있던 농민군과 외곽을 포위하고 있던 관군 사이에 치열한 접전지

○ 동학혁명기념관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4(풍남동3가), 한옥마을 내
- 천도교에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하여 건립한 기념관으로, 동학과 천도교 관련 자료 전시
- 동학의 역사와 숭고한 혁명정신을 기리는 곳

○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매곡로 35-29(서서학동) 안산칠봉 내
- 1991년 8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건립

○ 전봉준 장군 동상, 김개남 장군 추모비, 손화중 장군 추모비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덕진동, 덕진공원 내)
- 전봉준 장군 동상 : 1981년 10월 한국청년회의소 제30차 전국대의원대회 기념, 전주청년회의소와 풍남청년회의소에서 건립
- 김개남 장군 추모비 : 1993년 5월 '김개남 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성
- 손화중 장군 추모비 : 1998년 11월 7일 '손화중 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성

□ 기타 의견

- 전주성입성일 5월 31일(음 4월 27일)
 - 동학농민군 전주성 점령일이자 최대 전승일
 - 호남의 수부이자 조선 건국자 본향인 전주성 함락은 실제적인 측면과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
 - 전주성 점령의 결과물인 집강소 설치를 통해 단행된 폐정개혁은 피지배계층인 농민이 정치권력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큼

□ 결론 및 건의

-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고, 혁명의 상징성이 가장 큰 '전주화약일(6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추천

- ※ 붙임 : 1. 각 종 근거자료 등
2.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동의서(소관 단체 포함)

<관련 사료>

- 「양호전기」, 『총서』 6, 150쪽
- 『주한일본공사관』 1, 95쪽
- 「수록」, 『총서』 5, 212-213쪽

<역사성 관련 자료>

- 「전주성을 점령하라」 111-141쪽, 153-170쪽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2013.11.15.
- 「전주성을 점령하라」 171-205쪽 사료번역(전주성 함락 전후, 집강소 설치시기)

<상징성 관련 자료>

-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추진활동보고회 결과 안내' 공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106(2015.03.09.)
-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 의견 제출' 공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5 016(2015.09.21.)

<지역참여도 관련 근거자료>

-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내용
-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2017.03.30. 조례 제3389호)
-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식 추진계획
-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행사 사업계획서(2018)
- 2018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행사 홍보물
- 「전주성을 점령하라」 17-67쪽 전주지역 유적지

